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일본공간』 기획 좌담회

# TPP, 일대일로, 그리고 일본

이번 좌담회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경제권력 지형 속에서 일본 및 역내 국가들이 어떠한 인식과 전략으로 그에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를 다양한 영역과 지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분석해 보았다.

# 一帶一路

**일 시** 2016년 5월 27일

**장 소** 국민대 북악관 1310호

**사 회** 김기석(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참석자** 김양희(대구대학교 교수)

김흥규(아주대학교 교수)

이재현(아산정책연구원)

박창건(국민대학교 연구교수)

## ■ 김기석

오늘 나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좌담회는 TPP, 일대일로, 그리고 일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제가 경제 영역의 얘기들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분석은 물론 전략적인 부분도 분석해 보자라는 생각에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동남아, 한국, 일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창 화제가 되고 있는 ‘일대일로’<sup>1)</sup> 역시 이들 지역들의 큰 관심거리라서 이것 역시 다뤄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내 지역의 권력 지형 변화, 특히 경제 영역에서의 권력 지형 변화에 대해 각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적응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역내 경제 지도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TPP<sup>2)</sup>이고, 또 다른 하나가 ‘일대일로’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G2 질서의 형성이랄까, G2 질서의 경쟁이랄까, 이런 환경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여러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 지형만을 봐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방면의 전문가들을 모신 거죠.

일단 독자들을 위해 TPP나 ‘일대일로’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FTA 문제와 관련한 동남아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PP부터 할까요?

---

1) 一帶一路(One belt, One road). 시진핑 주석이 2013년에 주장한 것으로, 중국 중서부·중앙아시아·유럽을 경제권역으로 연결하는 육상 벨트인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중국 남부와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 등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합친 경제구상이다. 『연합뉴스』 보도 「AIB로 힘받은 시진핑 ‘일대일로’에 강한 자신감」 참고.

2) 환태평양 지역의 국가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약자이다.



## TPP와 일대일로 /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 ■ 김양희

TPP의 첫 출발은 아시아태평양의 소국들 즉,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 칠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P4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2007년까지 별 관심 없이 지켜보던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점점 중국의 역할이 커지고,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니까, 이걸 견제 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고민하던 차에 P4가 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제 P4를 키워서 아시아 전략을 수행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2008년부터 미국이 합류합니다. 그러면서 이름도 지금의 TPP(Trans Pacific Partnership)로 바뀌었죠.

그 후에 여러 나라들도 여기에 참여했고, 마지막으로 일본까지 합류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해 12개국이 됐습니다.

## ■ 김기석

보통 우리가 TPP 얘기할 때 RCEP<sup>3)</sup> 얘기도 같이 하잖아요? 지금 RCEP은 어떤 상태죠?

## ■ 김양희

RCEP은 최근에 협상이 끝났는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RCEP의 주도 역할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 정도인데 굳이 일본이 TPP 이전에 RCEP를 빨리 끝낼 이유가 없거든요. 물론 중국은 빨리 협정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일단 TPP를 끝내서 확실하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게 더 급선무이기 때문에 굳이 RCEP에 공을 들이지 않는거죠.

하지만 저는 RCEP이 중국의 주도로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메인 플레이어긴 하지만 중국만의 독무대는 아니죠. 한국이나 일본도 기본적인 자기 역할이 있고, ASEAN은 아세안대로의 여러 가지 섀범이 있어서 오히려 사공이 너무 많은 모양이 됐죠. 그래서 RCEP은 쉽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 김기석

원래 RCEP은 ASEAN+1의 형태로 여섯 나라를 묶은 것이잖아요. ASEAN도 RCEP과 관련해서 나름의 입장을 갖고 있을 텐데 최근의 동향은 어떨까요?

---

3)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인 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이다.

## ■ 이재현

현재 동남아 국가들, 즉 아세안은 RCEP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일본, 미국의 적극적인 아시아 지역 개입 및 주도로 아세안의 입지가 축소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세안의 입지, 특히 경제적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자 RCEP을 제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RCEP이 동력을 잃고 있어서, 이것으로 무슨 이익을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ASEAN이 하는 FTA가 늘 그렇듯이 경제적 FTA가 아니라 정치적 FTA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FTA를 추진하는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아세안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미국 피봇, 그 다음에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저렇게 나서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가진 물리력이나 경제력, 그리고 외교의 힘으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동남아 국가들은 전면에서 빠지고, 그 대신에 ASEAN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알아서 문제를 정리한 이후 다시 전면에서 나서겠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RCEP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 ■ 김기석

이왕 우리가 TPP로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보죠. 보통 TPP하고 RCEP의 가장 큰 차이를 자유화의 정도 차이로 잡았지요. TPP가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나요?

## ■ 김양희

제조업은 거의 100%에 가까워요. 농산품은 여전히 일본, 캐나다, 미국도 포함해서 생각만큼 높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조업의 수치이고, 농업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 ■ 김기석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문제들은 원래 의도했던 만큼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됐습니까?

## ■ 김양희

글쎄요. 생각보다는 높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한미FTA보다 높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미는 양자 간이고, TPP에는 한국보다 경제개발 수준이 낮은 나라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 ■ 김기석

자, 그럼 여기서 ‘일대일로’ 얘기를 조금 하죠. 일단 ‘일대일로’에 대해 간단한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김흥규

‘일대일로’는 시진핑 시기에 본격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후진타오 시기부터 중국의 서부대개발 정책과 관련해서 나온 것입니다.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외교, 안보, 경제 협력과 연계된 아이디어들이 산재해 있던 것을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면서 정리된 것이지요. 그 개념을 보면, 중국이 과거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도상국이라는 자아정체성에서 벗어나 ‘발전 중인 대국이다’라는 자아정체성으로 변화하면서 이 공간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육상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라는 개념을 통해 기존 정책과 구상들을 통합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이 소위 ‘아태 재균형 전략’이라는 것을 채택하면서 동쪽에서 강하게 압박해오니까, 중국이 이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중국이 강점으로 하는 경제와 문화, 인문교류 측면을 중심으로 서쪽

과 남쪽으로 뻗어나가려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는 3, 40년 이상 지속될 하나의 국가 전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박창건

하나의 구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흥규

원래는 전략이라는 말을 안 붙였고, 구상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는 전략이라는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 김기석

처음으로 전략이라는 말을 쓴 거군요.

■ 김양희

TPP와 '일대일로'를 동일 선상에 놓고 보는 것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창건

그럼 '일대일로'와 RCEP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기본 아이디어는 중국 쪽의 '일대일로'가 서진 전략을 하면서 위로는 육지, 밑으로는 해양을 목표로 한 것이고, 그 안에 RCEP도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 김흥규

현재로써는 '일대일로'가 아직 구체화 된 형태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진화중이지요. 그런데 '일대일로'가 지향하는 방향을 보면, 궁극적으로는



아주대학교 김흥규 교수

RCEP을 다 포함하게 되어있어요. 왜냐하면 동남아를 포괄하면서 남쪽으로 뻗어 나가는 자신의 주변 국가 전략 속에서 나왔거든요. RCEP의 대상국을 보면 ASEAN+6이며, 여기에는 인도가 포함되어 있고, 호주, 뉴질랜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일대일로'에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있는 것은 남쪽에서의 방향입니다. 중국이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 남중국해를 지나서 브루나이와 호주, 뉴질랜드까지 이어지는 남쪽

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RCEP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공간들은 다 '일대일로' 속에 다 융합되는 거죠. 적어도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 김기석

그럼 일단 '일대일로'라는 게 커다란 지역의 화두로 던져졌는데, 그것이 갖는 의미를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역내의 주요 행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ASEAN부터 시작해 볼까요?

ASEAN에서 이런 계획이 나왔고, 사실은 이제 APEC에서 발표를 했었죠. 과연 ASEAN에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지 말씀해 주시죠.

## ■ 이재현

기본적으로 ASEAN 국가들이 강대국에 취하는 이니셔티브를 보면,

자신들의 직접적인 이익에 대놓고 반하지 않으면 거의 다 찬성하는 분위기에요. 중국이 뭐라고 그러던지, 미국이 뭐라고 그러던지 대강 찬성해 놓는 거죠. 특히 ‘일대일로’에는 멤버십이 없잖아요. 그러니 그냥 좋다는 의견이죠. 다만, 구체적으로 멤버십을 놓고 보면, 그것은 AIIB<sup>4)</sup>에 대한 생각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AIIB에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실제로 투자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투표권을 부여 받았고, AIIB나 ‘일대일로’가 지역의 개발도상국가들의 인프라 건설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동남아의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죠.

특히 ASEAN 국가가 10개인데, 그 중 AIIB나 ‘일대일로’에 대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도 상당히 찬성하는 편이죠. 싱가포르도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일대일로’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인도네시아가 사실은 중국의 동남아로의 세력 확대를 부정적으로 봤는데, 현재 대통령인 조커이라는 사람이 개인의 치적을 위해서도 중국에 접근하는 편이라 ‘일대일로’라든지 AIIB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더욱이 2015년 말에 ASEAN이 ‘ASEAN Community’를 선언했는데, 그 계획 중 하나가 인적 및 물적으로 ASEAN의 연계성을 높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AIIB나 ‘일대일로’가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 ■ 김기석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혹시 ‘일대일로’와 관련해서 동남아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같은 게 발표된 적이 있나요?

---

4)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을 말한다.

## ■ 이재현

제가 얼마 전 ‘일대일로’와 관련해서 중국 광저우에 중국정부에서 개최한 포럼을 가게 됐습니다. 중국정부가 말하길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건설을 할 것이라더군요. 그런데 그런 설명에 중국이 전부 돈을 내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건 또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모든 국가들이 투자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실물경제 전문가가 말하길, 중국이 실제로 투자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강조를 해요. 한 마디로 뭔가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시진핑이 신안보관 이야기를 했던 2014년의 CICA<sup>5)</sup> 회의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니, 중국정부가 여러 포럼들을 진행하고, 거기에 개발도상 국가들이 참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런 자리에서 개발도상 국가들이 중국정부에 밝힌 입장인데, 진심으로 중국에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대 놓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에게 의존적으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으로 좋지만, 과연 동남아의 안보를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우 우려스럽죠.

## 중국의 AIIB 설립과 충격

### ■ 김기석

그 이야기를 AIIB와 연관지어 보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AIIB의 전체적인 규모나 조직이나 의사결정 구조 등이 ‘일대일로’를 추진해 나갈 때

---

5)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in Asia 의 약자로,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를 말한다.

커다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 박창건

AIB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대일로’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중국이 서방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인데, AIB를 구축을 하는 것 자체만 해도 이런 인프라를 위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 ■ 김흥규

AIB는 먼저,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상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중국의 주도성을 뒷받침해주는 기제가 됩니다. 두 번째는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데 중요한 국제기구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주변국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국제적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로’ 추진에 AIB는 대단히 상징적이고,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금융질서 측면에서 볼 때,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타격도 줄 수 있다고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중국에게는 대단히 큰 외교적, 경제적, 제도적 승리를 안겨준 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 김양희

그 부분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하면, 국제금융 분야에서 중국의 위상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주요한 사건이 AIB와 중국 위안화의 SDR 편입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차근차근 큰 차질 없이 기축통화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그리고 위안화의 힘을 키워나가는데 지금까지 상당히 성공적으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AIB도 기본적으로는 달러로 하겠지만,



대구대학교 김양희 교수(좌), 국민대학교 박창건 연구교수

부족한 부분을 다 달러로는 할 수 없죠. 지금 위안화를 방어하느라고 외환보유액을 많이 썼고, 결국은 위안화를 국제화 하는 하나의 중요한 발판으로 AIIB가 사용될 것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안화의 국제화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고요. 아마 올 10월부터 SDR에 위안화가 편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개의 날개를 달면서 미국 달러의 지위를 위협하는, 그리고 실질적인 위안화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AIIB는 단순히 개발만이 아니라 국제금융부분에서 상당히 주목할 수 밖에 없는, 매우 다목적 적이고 스케일이 큰 대외전략 카드라는 것입니다.

## ■ 김기석

그럼 AIIB문제에 대한 중국 내부의 시각은 어떤가요? 처음부터 이러한 성공을 예상했나요?

## ■ 김흥규

중국이 처음 AIIB를 제안했을 때, 이 정도의 성공과 성과를 거둘지는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스스로도 대단히 자신들의 위상과 존재감에 놀랐죠. 그런데 문제는 그 만큼 중국도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놀라운 것은 미국이 현재 헤게모니 질서에서 미국 다음의 지위로 여겨지고, 그리고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던 영국이 이렇게 빠르게, 심지어 미국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AIIB에 참여할 줄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했죠. 물론 중국도 말입니다. 세계정세 변화추이와 실리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 ■ 박창건

뭔가 막후의 배경이 있나요?

## ■ 김흥규

글쎄요. 영국 대사관에서는 영국이 AIIB에 뛰어들기 전날까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어요. 아마 그것은 미국을 고려해서 취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건 외교적인 문제이고, 재무부가 주도해서 이러한 외교적 입장을 뛰어 넘어 수상을 설득해서 결정한 거죠. 그래서 그 참여선언 전날까지도 영국은 미국에 AIIB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 김양희

정말 중국이 절묘하게 타이밍을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정도가 이제 좀 그 피해에서 벗어난 수준이지, 나머지 나라들은 심각한 침체 국면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적이거나 외교적인 문제는 둘째 치고,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졌으니,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이런 비즈니스 찬스를 마다하기가 어렵죠. 아마 나중에는 미국도 일본도 AIIB에 참여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내수에서 아무것도 기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내수는 접어놓고, 어떻게 하면 수출을 많이 할까 고민하는 상황이죠.

## ■ 김흥규

그래서 아마 영국과 중국과의 막후교섭은 없었을 것으로 봅니다. 영국 외교부조차도 AIIB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한 입장이었지만, 영국은 국익차원에서 참여함으로써 가져올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고려를 더 한 겁니다. 김양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이 그리 판단하건대, 유럽 국가들이 안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누가 먼저 뛰어드느냐가 문젠데 그러면 내가 먼저 뛰어들어야지라는 판단이 선 것 같아요.

## ■ 김양희

아주 실리적인 개념으로 본 거죠.

## ■ 김흥규

그 중에서도 룩셈부르크라든가, 독일 등이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자, 영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먼저 앞서서 뛰어드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 ■ 이재현

미국의 입장도 좀 생각해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미국은 직접적으로 AIIB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TPP를 추진하는 상태였는데, AIIB에 뛰어드는 이중적인 행동은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미국

은 TPP를 추진하면서 국내 대중을 설득하는 논리로, “중국이 ‘일대일로’로 동아시아 지역, 아시아,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새로운 질서와 경제 질서를 만들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TPP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무기다”라고도 하죠. 하지만, 이런 논리라면, 미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 경쟁, 나아가 전쟁 상태에 돌입되는 거죠.

다만, 영국과 관련해서는 어쩌면 미국과 영국 사이에 일정 정도의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AIIB에 못 들어가니까, 오히려 영국으로 하여금 AIIB에 들어가게 해서, 중국이 마음대로 설계하는 것을 조정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에서 영국의 AIIB 참여를 묵인했다는 얘기죠.

한편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특히 동남아쪽의 입장에서는 AIIB가 가진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거죠. 하지만,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AIIB에서 돈을 만들어 개도국에 인프라를 건설하고 지원한다고 했을 때, 개도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국은 AIIB 말고도 ADB<sup>6)</sup>라는 제도도 고려할 수 있지요. 물론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ADB를 통해 자신들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AIIB에 기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IIB가 ADB보다 덜 까다로울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AIIB에 영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참가하게 되면(나중에 미국도 들어갈 수 있지만 말입니다), 분명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거버넌스의 구조를 갖추게 될 텐데, 그 때에는 AIIB와 ADB의 차이가 없어지고, 그런 점에서는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남는 거죠.

## ■ 박창건

그러니까 ASEAN 입장에서는 앞으로 얼마만큼의 수용성을 갖느냐가 문제인거네요.

## ■ 이재현

그렇죠. 아시아국가들, 다시 말해 개도국들은 당연히 거기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죠.

## ■ 김양희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ADB는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겁니다. ASEAN의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가급적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또 일본 무기는 못 팔게 되어 있고 말이죠.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ADB에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이 일본에 대한 의존성을 너무 높인다든가, 미국에 대한 의존성을 높인다는, 그런 점에서 그것을 조금 견제할 필요성이랄까,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는 적당히 의존도를 분산시키는 입장도 있다는 점이죠.

6) 아시아개발은행. Asian Development Bank의 약자이다.

## ■ 이재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든 전략적으로든 아세안은 다각적으로 살필 수 밖에 없다는 거죠.

## ■ 김흥규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미국과 영국 간의 암묵적 이해가 있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이 미안하니까 나중에 그런 변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양국 간에 그런 양해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 김기석

제 기억으로는 영국이 AIB에 들어갈 때, 명분으로 세웠던 이야기였던 것은 맞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가입하겠다고 발표한 발표문 속에 이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거든요.

## ■ 김흥규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가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미국이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앞으로 국제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어떤 동력과 위상, 그리고 위신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AIB를 만드는 과정에서 미국은 상당히 타격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 ■ 박창건

그런데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영국이 처해있는 금융의 어떤 전략적 구조를 보면, 일단 유럽에서는 유로에

# TPP, 一帶一路

## 그리고 日本

들어 있지 않고, 유로 국가의 관계 갈등이 있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도 썩 좋은 것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돌파구가 분명히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IB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어떤 개연성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 ■ 김양희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도 결코 외면하지 못 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차원의 인프라 투자 전략이지만, 일대일로도 곳곳에 전략적 요충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곳이 온전히 중국의 영향권 하에 편입되는 걸 좌시하기보다는 미국도 적극 이 프로젝트에 관여하여 이러한 지역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겠죠.

### ■ 김흥규

미국도 지금은 AIIB에 대해 반대한 것이 전략적 오판이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들었습니다.

### ■ 이재현

문제는 미국이 어떤 명분을 챙기느냐는 거죠.

### ■ 김기석

명분도 명분이지만, 사실 AIIB의 거버넌스 구조를 보면, 본질적인 변화에 중국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미국이 들어가긴 이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일본의 역할도 중요한 듯 보이는데, 이제 일본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진행해 보죠.

먼저 일본이 TPP에 가입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어

떨까요?

일본은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구상에 편승해서 국내 개혁도 하고, 경제 위기도 타개한다는 생각인데, ‘일대일로’라는 것이 벌어졌을 때, 과연 일본이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할까요?

## ■ 김양희

일본의 TPP 참여는 일석오조 정도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한미 FTA에 대항할 수 있었고, 한미 FTA에 대항해서 TPP 한다고 하면 EU도 일본에게 FTA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한중 FTA도 하고 있어 일본도 뭔가 카드가 필요했는데, 그 대항마도 되고요. 게다가 국내 구조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일종의 외압으로 TPP를 가져야겠다는 동기도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도 후텐마가지 문제 등으로 어려웠는데, 이것 역시 해결이 되니, 한 마디로 대미, 대한, 대중, 대EU, 그리고 국내 정치개혁, 국내 구조개혁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TPP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TPP가 주는 경제적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몇 해 전 일본의 경제산업성 관료들을 만나 TPP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동차 정도 빼곤 별 대답을 못하더군요. 실제 협상 결과를 보면 미국이 대일 자동차 관세 25%를 25년간에 걸쳐서 연 평균 0.1% 씩 깎았습니다. TPP를 통해서 국내적으로 구조개혁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이 크고, 그 다음에 대 중국 전략이란 것 외에는 특별한 게 없다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TPP 협정문을 A4용지로 인쇄하면, 꽤 두꺼운 책이 다섯 권정도 나옵니다.

■ 김기석

다자협상을 처음 하는 것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 김양희

물론 그렇겠지만, 협정의 문서들이 많아진 이유는 상품무역을 다 1대1로 했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실체를 파악하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산지 규정에서 누적조항을 도입했는데 아무튼 너무 복잡합니다.

■ 김흥규

각국이 다 이렇게 1대1로 한 것이니, 뭐든 하나를 정할 때, 다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과정이 대단히 복잡하고 방대해지는 거죠.

■ 김양희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규정은 완전 누적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원산지 규정조차 양자 간에 각각 해버린다는 것은 하나 마나한 일이지요.

■ 김기석

이미 기존의 양자 간 FTA 조약이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이나 통관 절차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국수그릇 효과(noodle bowl effect)가 되는 거겠네요.

■ 김양희

그래서 사실상 경제적인 효과가 크게 없다는 거죠.

■ 김기석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 김양희

물론 경제적인 효과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TPP가 그다지 경제적 효과가 높지 않은 이유는 FTA와 관계가 있어요.

FTA는 상품무역의 관세철폐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TPP 회원국들의 관세의 수준이 기본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관세수준이 높았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의 관세치가 낮아진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FTA의 중심축이 관세 철폐에서 비관세장벽 철폐로 옮겨가는 이유가 이미 회원국들이 기존에 많은 FTA를 맺으며 관세를 철폐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TPP에서 관세를 철폐한다고 해도 그 수준이 높지 않아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각국 간의 상이한 제도, 정책, 규범의 차이로 인해 관세가 없어도 수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뚫기 위해서 비관세 장벽을 뚫으려고 하는 거죠.

비관세 장벽을 뚫는다는 것이 정부 조달이라든가, 서비스, 투자에 대한 상이한 각국의 제도를 통일을 시키고 조화를 시키는 쪽으로 가는 건데, 제가 볼 때에는 각 나라의 비관세 장벽이 오랫동안 만들어지고 유지되어 온 것이라 조약이 만들어졌다고 쉽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FTA 효과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TPP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는 기존의 무수한 양자간 FTA로 인해 noodle-bowl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존의 양자간 FTA를 TPP처럼 광역화해 나가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WTO가 추구하는 WTO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주의적 무역자유화의 디딤돌이 되게끔 하면 어떠한 것이죠. DDA<sup>7)</sup>가 그래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10년이 넘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FTA 같이 양자 간의 문제를 다자화 시켜 TPP를 만들고, RCEP도 만들면서, TTIP<sup>8)</sup>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이것들이 WTO에서 모일 수 있게 하는 것 외엔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 박창건

그런 부분에 미국의 글로벌 구상과 경제 전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호응해 나가야 할 지를 고민해야 하겠습니까.

## ■ 김양희

제가 TPP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도하게 미국 중심의 템플릿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 투자 부분을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동아시아에서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입니다.

동남아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한테 TPP가 어느 정도 득이 되는 템플릿인지 전 좀 의아합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한국과 FTA를 맺을 때, TPP와는 조금 다른, 동아시아의 발전단계의 특성을 감안한 뭔가 새로운 FTA 모델, 새로운 FTA 템플릿을 만들어 주기를 바랬죠. 놀라운 사

7) Doha Development Agenda,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에서 합의되어 시작된 무역협정이다.

8) 미-EU 간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실은 한중 FTA가 한미 FTA를 모델로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서 전 처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의 의도가 과연 뭘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산업부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알게 된 것은 중국으로서는 지금 동아시아에 적합한 FTA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은 다분히 실리적으로 언젠가는 TPP 이후에 미국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미국과 본격적으로 만나서 협상을 하기 전에 워밍업 파트너로 한국을 잡은 거고, 그래서 연습상대로 한국과 한미FTA를 모델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한중FTA를 한미 FTA를 모델로 진행한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면 한국도 중국도 버거운 채로 결국은 TPP 템플릿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그것이 실제 어느 정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끌려가게 될 것 같거든요. 특히 중국의 국유기업은 문제가 많죠.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건 급격하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십 년간 중국은 TPP에 못 들어간다고 봐요. 국유기업의 개혁을 다 끝내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 ■ 이재현

베트남 같은 경우, 문제가 심각할 텐데요. 저는 베트남이 미국의 수준에 맞추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 ■ 김양희

그래서 협정문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투자하고 서비스에만 전체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개방이 안 되는 분야는 상대가 원하면 개방에서 빼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개방인데, 재밌게도 지금까지는 투자하고 서비스에서만 이런 방식을 채용했는데, 이번에 TPP에서는 국유기업 챕터에서도 그걸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국유기업 챕터에서 몇몇 나라가 국유기업 운영을 시장 논리

# TPP, 一帶一路

## 그리고 日本

에 맞게 가는 것은 찬성하지만, 몇 개는 유보를 시킨 게 나라별로 조금씩  
다 있어요.

### ■ 김흥규

미국 대선 이 이 TPP의 향배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없을까요? 지금  
클린턴이나 트럼프 모두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잖아요. 클  
린턴 같은 경우도 본인이 오바마의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연 그것  
을 관철시키려고 할까요?

### ■ 김양희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 TPP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냐하면, 미국이 TPP를 주도해온 이유는 단순히 외교안보만의 문제는 아  
니었거든요. 일차적으로는 경제거든요. 지금 동아시아 말고는 전 세계적  
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낼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아시아를  
중국이 주도하면서 중국 주도의 규범을 만드는 것을 미국은 결코 좌시하  
지 않겠죠. 미국 비즈니스 입장에서든 또한 미국 산업계의 입장에서든 그  
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겁니다. 그 이익을 고스란히 대변한 게 TPP협정문  
에 바로 나오거든요. 다만 트럼프가 TPP는 미국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이라 반대한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져요. 그런데 트럼프가 샌더스는  
아니거든요.

### ■ 김흥규

맞습니다. 오히려 반대겠죠.

### ■ 김양희

트럼프 자신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다가 온 사람인데, 미국 재

제가 원하는 것을 안 한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외교안보적으로도 TPP가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피벗 투 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핵심 축인데 그걸 마다할 리도 없거든요. 5월 2일 날 워싱턴 포스트에 오바마 대통령이 기고를 했는데, 중국 경제를 견제하는데 그리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데 TPP를 놓치면 우리는 끝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이고, 그 인식은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 박창건

미국 입장의 FTA 기준이라고 할 때, 기준은 바뀌지 않는데 문제는 수용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태도들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이 문제입니다.

### ■ 김흥규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질 거고요.

### ■ 박창건

조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1980년대 후반의 APEC을 한 번 생각해 보시죠. 처음에는 모든 국가들이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APEC의 역할은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미국의 동력이 떨어지고, 외환위기 나타나면서 흐지부지해졌죠. 그것을 TPP와 비교해 보면, 만약 미국의 정권 자체가 바뀌었다고 기존의 TPP 정책 그 자체는 바뀌지 않겠지만, 문제는 그걸 수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비교 속에 대응 방식이 바뀌지는 않을지, 그게 문제인거죠.

### ■ 김흥규

또 하나는 정치적 효과예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맞는 말이고 합리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적이지만, 과연 민주당 정권의 뒤를 잇는 공화당 정권이 민주당 정권이 취한 이니셔티브를 계승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줄까 하는 문제이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아요.

## ■ 김기석

그 이야기는 좀 더 지켜보면서 다시 토론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아시아 패러독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군사안보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에 의존적이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이제 중국과 점점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죠. TPP니, ‘일대일로’이니 하는 것이 그의 좋은 사례입니다만. 과연 일본이 ‘일대일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또 어떤 인식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IB나 ADB시스템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 미·중의 갈등, 과연 일본의 선택은?

## ■ 박창건

지금 ‘일대일로’에 대한 일본의 전략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지만, 특별히 게 아직은 없습니다. 그 말은 일본이 아직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정확한 개념이 서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망 상태로 보고, 그러면서 중국이 해오는 ‘일대일로’ 전략 중 대응할 수

있는 것을 대응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아베 수상이 중앙아시아 5개국과 몽골을 방문하면서, 거기에 투자나 인프라를 약속하고 ODA를 말했는데,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중국에 대한 하나의 견제정책이지만, 아직까지는 ‘일대일로’의 개념이나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불어 일본의 기본적인 축은 역시 미국과 같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일 간의 동맹 생각을 기본적인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편승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일대일로’에 대한 관점이 미국이 보는 ‘일대일로’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 ■ 김흥규

‘일대일로’와 관련해서 중국의 최근 태도를 보면, 이것이 기존의 경제나 금융질서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질서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ADB에 대해서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일본과도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일본이 ‘일대일로’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남겨놓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실제적인 이익과 관련해서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상당히 복합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 김양희

저는 일본이 ‘일대일로’가 뭔지 몰라서 관망하고 있다기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하니까, 미국과의 관계를 깨지 않는 것을 전략적인 우선순위로 두고 판단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TPP에 들어가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졌는데, 중국의 ‘일대일로’로 들어가겠다고, 영국을 쫓아가겠다고는 생각은 안 하겠죠. 다만, 중국도 일본이 당연히 들어오길 바라고, 심지어 아시아에서 이렇게 큰 판이 벌어졌는데 일본이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완전히 안 들어가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만 가게 하기 보다는, 안에 들어가서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명분만 만들어지면, 미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 ■ 박창건

‘일대일로’의 그림이 무역에 관한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핵은 금융에 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의 제도화 부분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97년과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배운 교훈이 크다는 것이죠. 바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했다가 실패한 경험입니다. 일본 재무성 같은 곳에서는 그 교훈으로 AIIB에 관해 미국보다는 분명하게 자기 주체적인 형태의 전략을 취할 겁니다.

## ■ 김양희

동아시아에서 ASEAN+3가 CMI를 만들고 이를 다자화해서 CMIM으로 만들어 사실상 AMF<sup>9)</sup>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거기에 복병으로 나타난 게 TPP라고 봅니다. 만약에 RCEP이 좀 더 동력을 가졌다면, RCEP 구성원과 CMIM구성원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훨씬 실물 부분과 금융 부분의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발전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역내 금융통화협력의 중요한 성과인 CMIM이 거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죠. 왜냐하면, TPP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실물 부분에서의 무역협정이 되다 보니까 상승효과를 일으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적극적으로 이걸 TPP하고 별개라고 선을 그으며, CMIM을 실질적인 AMF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느냐 하면

9) Asia Monetary Fund의 약자로, AMF아시아 통화 기금을 말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일본이 만들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실패했다.

또 그건 아니거든요.

### ■ 박창건

아시아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그것을 중국의 돈으로 바꾸는 것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거죠.

### ■ 이재현

미국과의 관계도 생각해볼 수 있죠. CMIM에는 미국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한다면 미국이 아시아에서 좀 더 배제되는 형태로 바뀌겠죠. 일본 입장에서는 아주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나온 이야기지만, '일대일로'나 AIB에 일본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나 정치 외교 쪽과 깊은 관련이 있어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영국이 자기네 이익을 생각해서 AIB에 들어갔는데, 사실 이익 면에서 본다면, AIB에 일본이 참여하면, 영국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문제가 있고, 센카쿠·조어도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죠. 더욱이 중국과의 역사 인식의 문제도 있고요. 이런 정치 안보적인 이슈를 고려해보면, 웬만한 큰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서는 AIB에 일본이 들어가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 ■ 김양희

글쎄요. 그런 어려운 난관을 넘어설 만큼의 큰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 같은데...

### ■ 김흥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본이 마지막 남은, 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퍼즐일거예요.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을 보면, 육로로는 3가지의 길, 해로로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는 2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길이 동쪽으로의 길이에요.

## ■ 이재현

(중국은)포기한 것 같은데요. 그 동쪽으로의 길은… (웃음)

## ■ 김흥규

그런데 중국 내 동북 3성 사람들이 너무 우려하고 좌절하면서, 압력을 넣으니까, 시진핑이 급기야 작년 여름 두 차례나 방문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서요. 육로로의 길은 동북3성을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할 겁니다. 또 하나는 중국이 생각하는 해로로의 동쪽인데, 그 길은 아마 한국을 거쳐서 북한, 혹은 블라디보스톡 라인과 일본의 후쿠오카, 치타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관계가 관건인거죠. 일본이 안보적인 이유 등으로 주저한다면, 그 주변 라인들을 동원해 일본을 고립시키고, 일본으로 하여금 계속 참여하라고 압박할거예요.

## ■ 이재현

‘일대일로’ 지도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 쪽으로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남태평양의 도서 국가까지도 연결되죠. 중국의 동북 3성이라는 게 결국 한반도로 지나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데, 육로로는 북한이 막고 있어요. 만약 여러 문제로 어렵게 된다면, 아무리 동북 3성이 섭섭해해도 별 방법이 없겠죠.

## ■ 김양희

북한 쪽으로의 연결은 가능할까요? 우리도 이 문제는 최대 관심사 같은데…

## ■ 김흥규

중국과 북한이 그걸 사이에 놓고 서로 간에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한반도로의 연결을 원하고, 북한 쪽도 상당히 관심은 많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김정은 정권은 핵만 인정받으면, 경제적으로는 훨씬 유연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카드를 내미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핵 문제에 강경하니까 어려운거죠.

## ■ 이재현

근데 그 문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중국이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그 카드로 한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에게 협상을 한다면, 절대 불가능할 텐데요.

## ■ 김흥규

하지만, 전적으로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좀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문제겠죠. 그리고 우회하는 길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도 그렇고, 나름대로 시베리아도 연결될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 김양희

그 과정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 ■ 김흥규

당연히 우리가 그걸 해야죠. 창조적으로 제안하고 끌어당기고, 설득하는 작업을 하면 우리가 이 공간에서 허브가 됩니다.

■ 김양희

그럼 지금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중요한 위치인데.

## TPP와 한반도

■ 김기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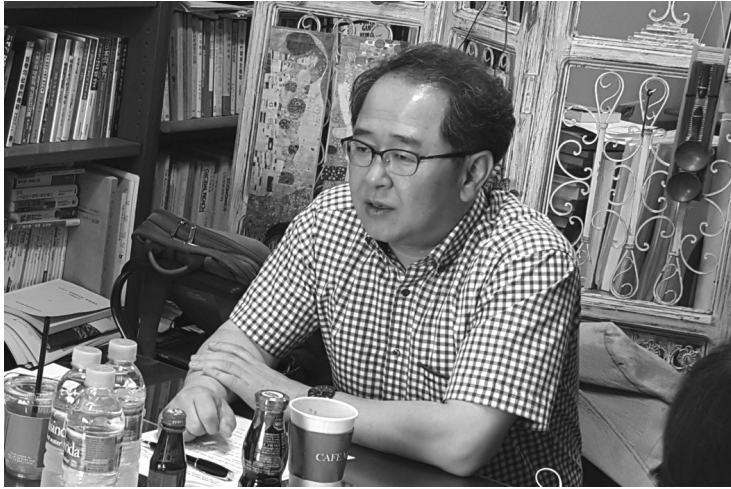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어야 할 한국 테마로 넘어왔네요. 그럼, 여기서 본격적으로 ‘일대일로’를 동쪽으로 연결하는 문제와 한국이 TPP에 가입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죠.

예컨대, 한국과 중국이 일단 북한을 포함해서 선을 긋고 그것을 카드로 북한에 핵을 포기시킬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겠는지,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TPP문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한국이 사실 정치적인 희생을 감안하면서까지 무릅쓰고 거기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어떤지, 이 점도 이야기해 주시죠.

■ 김양희

저는 개인적으로 TPP에 대한 우리의 문제는 참여하느냐 마느냐보다는 언제, 어떻게 참여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중국과 미국조차도 결국은 서로 만날 것을 상정하고 있거든요. 언제 그것이 이뤄지느냐가 문제죠. 만약 미국과 중국이 포함된다면 그런 광역 FTA에 한국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FTA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해요. 지금



강원대학교 김기석 교수

누적 원산지 규정 때문에 우리가 엄청 피해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섬유와 자동차 외에 그렇게 큰 피해는 아직 없거든요. TPP 참여국들은 그들 안에서 가급적 모든 부품 소재의 조달을 해결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TPP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TPP 회원국 수출시장이 TPP 역내국으로 전환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로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 ■ 김기석

저는 TPP와 관련해서 2가지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타이밍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일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양자 FTA를 묶는 형태로 협상했기 때문에 일본과 협상 문제가 남았거든요. 한국이 한일 FTA에서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나라와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이고, 사실은 일본과만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TPP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 ■ 김양희

해마다 한일 간 경제회의를 하면 단골메뉴가 한일 FTA를 빨리 하자  
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한국이 TPP에 들어가는 것을 양국 재  
계가 환영한다, 한중일 FTA도 빨리 하자라는 얘기만 나왔습니다.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 것이 10년도 더 됐거든요. 그 사이에 한국이 세계에  
유례가 없는 고강도 개방수준의 한미 FTA를 맺었고요. 저는 10년 전에 비  
해 한일 FTA에 대한 민감도가 좀 약해졌다고 봅니다. 과연 지금도 한일  
FTA에 그렇게 격하게 반대할까? 그렇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  
에도 불구하고 타격은 있죠. 일본과의 FTA가 두려워서 TPP 12개국간에  
글로벌 밸류체인(GVC)이 점차 강화되는 것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좋은 TPP와 관련된 베스트 시나리오는 TPP가 상당기간 고착  
상태가 지속되는 것, 그동안 중국이 체력을 단련하고 한국도 좀 더 경쟁  
력이 좋아진다면 좋겠죠. 한국 단독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고  
싶은 여러 멤버들끼리 공조를 취하는 게 어떨지요.

결국 미국도 중국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대신 미국의 룰에 따르라는 거거든요. 하지만, 중국이 고스  
란히 백기 투항하면서 TPP에 들어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럴 때 우리가 그려야할 그림은 포스트 TPP거든요. 어떻게 그릴 수 있을  
까? 혼자 단독으로는 하기 힘들다고 했을 때, 누구와 같이 할 수 있을까?  
협력 파트너를 누구로 할까? 결국은 중국이거든요.

## ■ 박창건

저는 TPP에 대한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것이 고착화 상태가 되고 미

국 선에서 흐지부지되면서 아예 사라지는 것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적으로 시기와 방법론 부분에서 김양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동의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은 TPP보다도 ‘일대일로’를 하나의 지역구상, 지역 전략으로 보면서 제도화를 삼았을 때,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일대일로’에 대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일대일로’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 그림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이 생각하는 ‘일대일로’에 대한 구상이 제도적으로 발전한다는 것과 우리의 준비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김양희

흥미로운 것은 TPP와 RCEP, TTIP 모두 다 엮여 있거든요. TPP가 동력을 상실하면 RCEP도 동력을 상실하고, TTIP도 동력을 상실하거든요. 만약에 TPP가 된다, 그러면 RCEP도 급물살을 타고 TTIP도 그럴꺼예요. 그렇기 때문에 TPP가 어떻게 되냐는 건 세계무역질서가 어떻게 되냐는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 ■ 이재현

‘일대일로’와 TPP의 지도를 놓고 그림을 생각해 봤는데, ‘일대일로’는 굵은 붓으로 지역을 크게 굵은 것이고, TPP는 가는 붓으로 치고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정학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 중 하나에는 대충 다 걸려요. 그런데 한국만 하나도 안 걸려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대일로’에도 확실히 포함된 게 아니고, TPP도 하겠다고 했지만 참여한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요. 이걸 바꿔말하면, 이 두 개가 만나는 지점으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걸 가지고 양쪽으로 밀고 당기기를 할지, 아니면 우리는 둘 다 안 들어갔으니까 그 안에서 자율성을 추구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하겠다고 할지, 과연 그 방향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일대일로'하고 TPP라는 것이 빗겨나간 공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이 그걸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 ■ 김기석

우리가 내놔야하는 문제 아니에요?

## ■ 김양희

그 부분에 대해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하나 밑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일대일로'는 기본적으로 낙후지역 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낙후지역으로 들어갈 나라는 아니라는 거죠.

## ■ 이재현

한국이 낙후지역으로 들어간다는 게 아니죠.

## ■ 김양희

우리는 '일대일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AIB에는 참여했거든요.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또 하나는 한중 FTA가 있고, 또 TPP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저는 굳이 TPP를 조바심 내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이 TPP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중국과 미국에서 볼 때, 한국은 결코 놓칠 수도, 뇌줄 수도 없는 중요한 전략적인 파트너이기 때문이죠. 한국이 오히려 그걸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이상하게 조바심을 내요.

## ■ 이재현

한국이 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TPP에도 들어가  
고 ‘일대일로’에도 들어가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목소리를 내고  
양쪽을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 ■ 김흥규

한국은 무역 국가이고, 중견 국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시장  
을 넓히고, 국제경제 영역에서 규범의 새로운 제정이나 제도의 창설에 대  
해 긍정적으로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미중관계의 큰 흐름을 두고 볼 때 적어도 2, 30년간은 전 세계  
의 규범과 제도 원칙들을 재조정해 나가는 아주 어려운 과정이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을 압도하거  
나 규정하거나 하기는 어려운 구조로 가겠죠. 상당히 오랫동안 이런 재조  
정 과정들이 진행될 거라는 예상입니다. 이것이 쉽게 타결되거나 일방적  
으로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런 의미라면 김양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유를 갖고 과  
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참여하지만 우리가 긍  
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목소리와 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대신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어느 진영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편  
향된 정책을 하거나, 혹은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 김기석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요. 역시 전문가들을 모셔봤더니 시간  
이 빨리 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을 짧게 한 마디씩 해 주시죠.

## ■ 박창건

현재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은 TPP이고, 중국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기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자기들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편승해 가는 전략을 택했고, 한국은 관망을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 어느 부분 저도 동의는 하지만, 이렇게 관망만 해서 시기를 놓친다면, 그에 대한 부메랑 효과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도 나름대로 큰 그림을 가지고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전략을 가졌으면 합니다.

## ■ 이재현

저는 박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부터 시작을 하면, 우리가 관망을 하는 것은 좋은데, 한국정부는 늘 관망만 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관망을 하는 동안 고민을 해야 하는데, 관망하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이라는 두 국가 사이에서의 경쟁 구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CICA하고 '일대일로'라는 것이 겹쳐지면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이 그림이 결국은 동남아, 서남아, 중앙아, 일본, 중동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중국 발 서진형 영향권(sphere of influence) 구축이란 의심이 들거든요. 한편 미국은 'Indo Pacific'을 이야기하지만, 이것 역시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전략적인 연정(coalition)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미국과 중국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커다란 벨트라고 할까, 지대라고 할까, 이런 새로운 지역 개념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이런 지역 개념들이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큰 그림에서 한국은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빠진 나라들을 이삭줍기 같은 것을 해서 연합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 김흥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이고,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갖는 강점들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론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 답론 속에서 경쟁을 활성화 시켜야만 합니다. 현재 복잡하게 진행되고 국제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계속 읽어내면서, 지나치게 경로 의존적이거나 편승적인 사고만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결정,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가능케 하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 ■ 김양희

짧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정부에서 TPP 얘기한다고 하면, 주최기관은 늘 산업부이고 경제하는 사람들만 불려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대외전략 부분은 단순히 경제 현안만도 아니고, 외교현안만도 아닙니다. 아주 복잡하죠. 저는 오늘 각각 다른 분야의 선생님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니깐, 훨씬 더 많은 이야기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정부도 조금 더 그런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우려이면서 조바심인데, 한국은 미중 관계 사이에서 조바심을 내는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너무 단순하게 중일, 중미의 대립 관계만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배웠듯이, 결정적인 순간에 강대국은 이익이 맞아떨어지면 나머지 나라를 다 빼버리고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너무 우리는 안이하게 우리의 존재감을 과대평가 하는 것

# TPP, 一帶一路

그리고 日本

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중관계, 한일관계, 한미관계보다 중미관계, 중일관계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 안보적으로 대립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각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 ■ 김기석

저는 김양희 선생님이 처음에 해주신 말씀이 제일 맘에 드네요.(웃음) 이 토론회가 얼마나 잘 조직되었는지 말씀해주셨기 때문이지요. 전문가들의 식견 덕분에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서로 공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주셔서 재밌는 토론 이어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日本空間)